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김 효 정*(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 조교수)

생활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어떤 생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시간적 배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생활시간의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 및 사회전체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최근 재택근무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자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생활시간사용과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사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1999년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설문지와 시간일지 기록표를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부실기재를 제외하여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165부, 직장근무자 292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생활시간을 생리적시간, 직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요일에 따른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생리적시간에 있어서 두 집단 모두 평일에 비해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생리적시간이 길었다. 직업노동시간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순으로 직업노동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일요일, 평일, 토요일의 순으로 길었으나,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일요일, 토요일, 평일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평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의 여가시간이 길었다. 한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을 비교해본 결과,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직업노동시간, 평일 및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평일 및 토요일 여가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일요일 직업노동시간, 평일과 일요일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평일과 토요일 여가시간이 길었으며, 평일과 토요일의 직업노동시간은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에 비해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적 시간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육체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요일에는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의 직업노동시간이 길었는데, 이는 많은 재택근무자들이 소매업과 같은 가족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평일이나 휴일의 구분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요일에 줄어든 직업노동시간 대신 가사노동에 자신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평일에 하지 못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